

신춘문에 당선작

<24면에서 계속>

은 그저 그의 스랭글 달린 공연복이 그리 세련되지 않아서였을지도 몰랐다.

사진 속의 그는 웃고 있었으나 그건 어딘지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혹시 그의 가족들이 가까이 아닐까. 이렇게 세상 밖의 사람처럼 깨끗하고 맑은 사람이, 이들과 피를 나눈 한 가족이라니, 윤은 믿기질 않았다. 혹 그는 어린 시절 서커스단에 납치된 게 아닐까. 어딘가 그와 같이 가늘고 긴 손가락을 가진 진짜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는 여태껏 마술 가족의 일원이 되어 혹사당해 온 것이다. 그래, 그럴 것이다. 윤의 머릿속은 끝없는 공상들로 어지러웠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와 그는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서로 닮아 있었다. 그 가늘고 긴 손가락 마저도. 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겨레처럼 일을 마치고 나자 시간이 여유 있게 남았다. 윤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마술극장을 향했다. 버스에서 내려서 프린스 호텔을 찾았으며, 그 옆 번쩍번쩍한 골목길로 오시다 보면 오른쪽에 보여요. 처음 마술극장에 전화를 했 때 그는 그렇게 말했다. 과연 마술극장은 2류 유흥업소들이 가득한 골목에 슬쩍 끼어들어 있었다.

오후의 유흥가는 어딘지 겸연쩍은 표정이었다. 정오까지 늘어지게 자고 일어난 작부들이 세수도 안 한 채 문지방에 기대어 재수쾌라도 떴고 있는 모양새로, 고만고만한 업소들이 나뭇한 맨얼굴을 내보이고 있었다. 아직 켜지지 않은 네온사인들 위엔 뿌연 먼지가 쌓여 있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마술 도구들을 점검하고 있었다. 두 시간이나 일찍 찾아온 무례를 그는 꾸짖지도 문지지도 않았다. 그는 컷바위를 살짝 문지르더니 윤에게 주먹을 쏙 내밀었다. 윤은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윤의 손에 북하고 동전 하나가 떨어졌다.

“행운의 동전이에요. 좋은 일만 생기답니다. 일찍 오신 선물이에요.”

윤은 좀 머쓱해져서 공연하 동전을 한 번 위로 던졌다가 받았다. 그리고는 그에게 처

그의 손이 잠깐 멈추었다 다시 움직였다. “글쎄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 새 마술사가 되어 있었어요.”

“저랑 비슷하네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노쳐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들은 함께 웃었다.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버린 건지 모르겠어요.”

“마술이 필요하세요?”

“웬만한 마술 가지고는 어렵겠어요.”

그들은 또 함께 웃었다.

“선생님이 좋아졌어요.”

그의 손이 다시 멈추어 섰다. 그는 말없이 객석의 윤을 건너다보더니 천천히 윤에게로 걸어왔다. 주먹이 속 윤의 눈앞에 다가왔다. 윤의 손바닥에 그의 따뜻한 손바닥이 닿았다. 그리고 그는 딱, 손가락을 올렸다.

“선물이에요. 당신은 지금 다시 스무 살이 되었어요.”

“아, 윤은 웃음을 터뜨렸다.

프로그램의 끝은 수강생들이 꾸미는 마술 쇼였다. 수강생들은 저마다 몇 가지 기술을 이용하여 이야기를 만들어야 했다. 마술사 남자는 그 보답으로 프로그램이 끝난 주 토요일, 그들만을 위한 정식 마술 공연을 선보이기로 했다.

수강생들은 얼마쯤 들떠 있었다. 문화센터 여자는 100송이 장미를 몸 여기저기서 자꾸자꾸 만들어내는 마술을 준비할 거라고 했다. 최고로 근사한 러브 스토리를 만들 거라며 여자는 또 주름꽃을 잔뜩 피워냈다. 병아리 여선생은 문제아 아이들이 마술을 배우면서 착난 어른이 되어가는 이야기를 만들 거라고 했다. 바람둥이 청년은 그의 사랑이 승리를 거두는 연애 판타지를 펼쳐 보일 모양이었다. 문화센터 여자는 상기된 얼굴을 윤에게로 돌렸다. 윤은, 윤의 이야기는, 여전히 도통 오리무중이었다.

윤은 스무 살이 되지 않았다. 여전히 아침마다 윤은 거울 속에서 정직한 서른셋 여자의 얼굴과 마주쳤다. 그의 마술은 들어먹지 않은 셈이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윤은 그가

에게 있을까. 그의 마술은 어디까지 통하는 것일까. 윤은 자문해 보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윤이 지금까지 두려워했던 것은, 속물이 되는 것이었을까, 속물스러워 보이는 것이었을까. 윤은 스스로의 속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남들과 다르고 싶다는 것, 그만큼 속물스러운 것이 있을까.

나이트 가수처럼 반짝이 재킷을 입은 그의 아버지가 윤의 뒤를 쫓아오고 있었다. 평범한 게 싫어? 그럼 이런 건 어때, 봐, 비둘기가 준 용기였을까, 윤은 불쑥 말했다. “선생님이 좋아졌어요.” 그의 손이 다시 멈추어 섰다. 그는 말없이 윤을 건너다보더니 천천히 윤에게로 걸어왔다. 주먹이 속 윤의 눈앞에 다가왔다. 윤의 손바닥에 그의 따뜻한 손바닥이 닿았다. 그리고 그는 딱, 손가락을 올렸다.

발레복 위로 튀어나올 듯 부풀어 오른 그들의 둥근 젓가슴이 윤의 등과 팔을 눌렀다. 어서와, 어서와, 너에게 열린 문이요. 너에게 스랭글로 빛나는 삶을 선물로 줄게. 마술을 믿어 봐.

무대에 불이 들어오고, 그들은 차례로 둥근 원 안으로 나아갔다. 초등학교들의 첫 학예회 무대처럼 서늘고 정겨운 무대였다. 그

우리 식구들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천민,

통속적인 싸구려 서커스쟁이들,

집도 절도 없는 누더기 집시 떼거리들이예요.

들의 마술은 종종 들통이 나고, 나머지 관객들은 도리어 그 실수들을 유쾌하게 즐겼다. 문화센터 여자가 정말로 백 송이의 꽃을 만들어 보여더니 그것을 수줍게 마술사 남자에게 건넨 데서 마술 쇼의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공연이 끝나자 마술극장의 무대는 간단한 뒤풀이 장소로 변했다. 사람들은 발그레한 얼굴로 등글게 돌려 앉아 잔에 술을 채웠다. 무언가를 함께 한 사람들 사이에는 피붙이 같은 정겨움이 생겨난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족보다도 오랜 친구보다도 가깝게 느껴지는 타인이 된다.

오래가지 않는 환형, 일종의 착각 같은 것이 그 하룻밤 사람들 위에 축복처럼 내리는 것이다. 바로 그런 밤이었다. 맥주와 노래들, 그리고 이야기들, 마술과 착각이 사방에 고루 뿌려져 있었다. 술이 취하자 사람들은 서로 끌어안고 불을 부벼 댔다.

병아리 여선생과 바람둥이 청년도 어느 틈에 손을 맞잡고 있었다. 청년의 마술이 통한 것일까. 병아리 여선생도 드디어 누구에게나 눈치 채인 것일까. 스쳐지나가던 사람들이 잠시 비를 피해 늘어선 차마 밑에서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순간처럼, 그렇게 덧없고 찰나일 뿐인 어느 봄날의 하룻밤이었다.

그 하룻밤이 지나고 나면 그들은 길에서 만나도 잠시 걸음을 멈춰다 다시 갈 길을 재촉하는, 그런 정도의 인연으로 머무를 것이었다. 모든 것을 알면서도 윤은 부러 냉정한

예측을 집어두고는 문화센터 여자의 틈에 맞추어 깔깔, 웃음을 터뜨렸다.

마술극장의 층계장에서 윤은 화장실에 다녀오던 마술사 남자와 마주쳤다. 빛을 등지고 선 그의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서였던가, 불쑥 그에게 주먹을 내민 것은, 알 수 없는 것들이 싫어서, 세상이 쳐둔 베일 같은 것들이 지겨워서였을까. 그는 손바닥을 내밀어 윤의 주먹을 받아 쥐었다.

그와 윤은 어둠과 마술의 힘을 빌어 키스했다. 세상의 눈을 피해 그들은 마술 우산 아래 숨었다. 주변의 모델과 나이트의 불빛들이 마술극장의 입구까지 따라 들어오다가 말없이 등 돌려 그들을 가려 주었다.

윤이 극장 안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일시에 싸늘한 시선을 보내왔다. 병아리 여선생은 고개를 저만치 돌렸고, 바람둥이 청년은 노골적으로 입을 삐죽거렸다. 윤은 영문을 모른 채 쭈뼛쭈뼛 구석 자리에 앉았다.

그나마 문화센터 여자가 말을 걸어온 것이 고마울 지경이었다.

“자기, 선생님이 사귀어?”

순간 가슴이 흥칫, 멈추어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하고 사귀느냐고.”

사람들은 탄전을 부리는 척 하며 윤과 여

자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윤과 마술사 남자 사이의 일을 엿본 누군가가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 그건, 윤은 입을 다물었다. 여자는 핵 고개를 돌리며 내뱉듯이 말했다.

“마술사 선생 취향도 별 거 아니네.”

순간 윤의 얼굴이 확 돌아올랐다.

“하긴, 마술사 선생도 뭐 별 건가. 속임수나 쓸 줄 아는 별 수 없는 판짜리.” “말씀이 너무 심하잖아요.” “심하긴 뭐가 심해? 우리 모두 마술사 선생 좋아하는 거 알면서 혼자 선수 친 자기가 심하지, 별이라도 판 기분인가? 어차피 뭐 어찌겠다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자기 별루야. 같이 판짜리 마술 잘 해봐. 칼 쏘기 마술 할 때 조수도 하겠네. 필리자 않게 조심하구.”

여자는 할 말을 다 했다는 듯 행하니 시선을 돌렸다. 윤은 숨을 몰아쉬었지만, 대꾸할 말이 도무지 생각나질 않았다. 윤은 말없이 돌아섰다. 계단 앞에는 마술사 남자가 쓸쓸히 서 있었다. 그는 사람들이 눈치 채지 못하게 살며시 극장을 빠져나갔다. 윤은 날카롭게 문화센터 여자를 노려보았다. 윤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윤은 몸을 날려 계단을 뛰어올라갔다. 마술사 남자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다. 윤은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몇 번이나 심호흡을 했다.

윤은 알았다. 문화센터 여자는 그저 조금 질투가 났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윤에게는 마술사 남자를 그토록 쓸쓸하게 만든

문화센터 여자가 세상의 누구보다도 증오스러웠다.

그것은, 실은 윤 자신에 대한 증오였을까. 그와 키스하고 난 직후, 돌아서서 내려오던 윤의 머릿속에도 문화센터 여자와 비슷한 생각이 떠올랐다고 하면, 그건 그들 사이에 잠깐 핀 꽃 같은 마술에 대한 모독이었을까.

극장을 나서는 순간 모든게 무너져 내리거나,

그대로 천만년 머무른다 할지라도,

지금은 쇼쇼쇼, 키취풍 매직 쇼의 밤

윤은 무엇에겐지 알 수 없는 슬픔으로 잠깐 울었다. 아무 것도 모른 채 그저 깨끗할 수 있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다. 어느 틈에 어른이 되어 버린 기분이었다.

다음날 윤은 공연 시간보다 한참이나 일찍 그를 찾았다.

그는 울고 있었다. 공연 연습을 하고 있던 던지 멋진 연미복에 마술사 모자를 쓴 채로, 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손을 짚고 선 비둘기 우리의 창살 틈으로 눈물방울이 똑 떨어졌다. 윤은 가늘게 들썩이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는 젖은 눈으로 윤을 돌아보았다. 윤은 천천히 마술사 남자의 이마에 입술을 가져다 대었다. 그들은 한동안 그런 자세로 멈추어 서 있었다. 우리 속에서 비둘기들이 관중이요, 구구, 하고 작게 속삭이고 있었다.

그는 슬쩍 윤에게서 몸을 빼내 고개를 돌렸다.

“당신에게 줄 게 없어요.”

“마술을 주었잖아요.”

“그건 눈속임일 뿐이에요.”

그는 마술사 모자를 거칠게 벗어 던졌다.

모자가 무대 바닥에 벌렁 넘어져 흔들거렸다.

“사람들은 삶이 무료할 때 잠깐 마술을 즐겨요. 모두 알아요. 내가 능숙한 마법사가 아니라 그저 마술사에 불과하다는 걸. 나나 우리 식구들은 이 비둘기들만도 못해요. 여전히 세상이 두려워하는 천민, 통속도 그런 통속이 없는 싸구려 서커스쟁이들, 집도 절도 없는 누더기 집시 떼거리들이예요. 관객들은 아무리 멋지게 속이려 해도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는 무서운 사람들이예요. 눈앞에선 박수에 환호를 질러대다가 돌아설 땐 싸구려들, 하고 코웃음을 치죠.”

윤은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무대 옆 존 비실로 들어갔다. 그의 외아한 눈빛이 윤의 뒤를 쫓았다. 갓까지 공연 의상들이 가지런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윤은 가만히, 반짝이는 의상들을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우린 모두 꼭 어른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 속물이 아닌 척, 속된 것과는 천만 년 거리가 먼 척 우아한 얼굴을 하고서 도리어 세상에 가장 흉악한 냄새를 피우는 속물이 되는 것이 그나마 성공한 어른이란 것일까.

윤은 가장 화려한 스랭글 옷을 차려 입고는 무대로 나갔다. 금박 줄무늬가 웃기거나 수놓아져 있었다. 어깨와 소매의 스랭글 옷이 움직일 때마다 찰그랑 찰그랑 맑은 소리

를 냈다. 마술사 남자의 얼굴은 웃음인지 울음인지 알 수 없게 일그러져 있었다.

“당신만을 위한 공연이에요.”

윤은 딱, 손가락을 올렸다.

당신의 삶에는 마술이 필요해요. 마술로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으니까요. 그렇기에 더더욱 당신에겐, 그리고 나에게

마술이 필요해요. 윤은 그에겐지 자신에겐지 알 수 없는 말들을 소곤소곤 중얼거렸다.

3 토요일 밤, 그와 그의 가족은 열명의 수강생들을 위해 공연인 마술 쇼를 보여주었다. 그는 카드에 불을 붙여 그것을 입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어 불탄 자국 하나 없는 말끔한 새 카드로 만들었다. 그것을 부채로 부치자 그것들은 지폐 대발이 되었다가 다시 무수한 색종이들이 되어 공중으로 날아갔다.

작은 극장 안에는 여전히 카드가 타다 만 매캐한 연기와 내음이 남아 있는 채였다. 그가 손가락을 딱 올리자 색종이들은 공중에서 흰 눈이 되어 풀풀 날렸다. 초보 수강생들엔겐 도무지 어디쯤이 손재간인지 알 도리가 없는 솜씨 좋은 마술이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정하게 손을 잡고 무대 중앙으로 올라왔다. 아버지는 불을 내뿜고, 어머니는 녹슬지 않은 덩블링 솜씨로 아버지의 불 고리 속을 통과했다. 그는 상자에 든 여동생에게 깊숙이 칼을 내뿜었다. 관객들이 비명을 지르자 목판 내놓은 여동생은 정국 윈크를 했다.

또 다른 여동생은 죽은 듯이 최면에 잠겨 공중에 떠올랐다. 그의 마술 가족들은 하나 같이 천진하고 사랑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 있던 문화센터 여자도 어느 새 발그레한 얼굴로 입을 벌린 채 탄성과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마술사 남자가 손가락을 딱 올리자 관객들은 모두 조급의 공중으로 떠올랐다.

관객들은 카르륵 웃으며 공중에서 발을 동동거리고 손뼉을 쳤다. 마술사 남자와 윤의 시선이 공중에서 따뜻하게 얽혀들었다. 순식간에 윤의 몸이 빙글 공중에서 돌더니 무대 위로 동동 떠갔다. 마술사 남자가 다시 손가락을 휘기자 윤의 원피스에 스랭글 달린 발레복으로 바뀌었다. 윤은 차마를 양손으로 잡고 한 발을 뒤로 하여 멎들어진 무대 인사를 보냈다.

이것은 한편의 매직 쇼, 반짝이는 스랭글을 달고 우리는 불과 불 속을 전진하며 비둘기과 꽃을 피우 올린다.

마술극장 밖 거리에선 단란주점과 모텔과 나이트클럽의 네온사인들이 모두 함께 입을 맞추어 쇼쇼쇼, 합창을 한다. 마술극장을 나서는 순간 모든 것이 먼지로 변해 무너져 내리거나, 그보다 더 끔찍하게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천만년 머무른다 할지라도, 지금은 쇼쇼쇼, 키취풍 매직 쇼의 밤.

광주일보 신춘문에 단편소설 부문 당선소감

“글쓰기는 나의 뒷심... 부족하지만 더 깊어질 것”



당선자 오윤주씨

생의 빈틈이 열리는 순간이 있다. 익숙하던 길이 낯설어지고, 발걸이 자꾸 허방을 닿는 그런 순간들. 마음과 일상에 굳은살이 단단히 통쳐져 있음을 흠뻑 깨닫는 순간들. 불안이 영혼을 잠식하는 흐린 저녁의 시간이었다. 나는 종종 내 밖으로 나와 거리를 헤매 다녔다. 욕망으로 눈이 이글거리는 사람들이 어깨를 톡톡 스치고 지나갔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런 시시한 것들이 간혹 간절하게 공명해졌다.

그런 때가 오면 습관처럼 노트를 샀다. 첫 장을 열어 그 허공을 들여다보면 금세 마음이 수그러들었다. 나는 부작처럼 빈 노트를 간직했다. 글쓰기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은 채로 나의 뒷심이 되

어주었다. 마음이 앞선 채 선풍 글을 쓰지 못한 것은 스스로의 부족함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혼자 달려 나가는 통에 나는 차마 글을 쓸 수가 없었다. 나는 좀 더 깊어지고, 깊어지고, 또 깊어지고 싶었다.

여전히 부족한 그대로다. 그러나 이제는 부족함을 책망하는 마음보다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더 커져 버린 모양이다. 별 수 없이 좀 더 열렬해질 수밖에 없다.

피붙이와 피붙이 아닌 당신에게, 흐린 저녁과 바람에게, 팽팽히 살아 있으나 연젠가는 스러질 모든 것들에게 감사드린다.

당신들의 희미한 흔적들을 더듬어갈 것이다. 생의 빈틈과 만나 결연히 약속할 것이다. 아직은 가진 게 없어 많이 부끄러울 뿐이다. 부끄러움이 나의 힘이 되어주기를, 나는 믿는다.

- ▲1973년 용인 출생
- ▲고려대 국문과 졸업
- ▲서울대 국어교육과 대학원 재학 중
- ▲현재 경기도 군포시 수리고등학교 국어교사

단편소설 부문 심사평

허구 공간의 욕망, 짜임새와 심리묘사 적절

예시를 거쳐 올라온 11편의 작품을 읽으면서 작년보다 수준이 높지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전체적으로 소재나 주제를 장악하는 구성력이 미흡했고 신인다운 패기나 참신함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단편소설의 미학은 밀도, 방향, 율법이다. 이를 고루 성취해내지 않은 전체적인 구성은 물론이려니와 주제론 전달하는 힘도 떨어지게 마련이다.

화장실에 갇힌 남자의 시선을 통해 가족 구성원의 일상을 묘사한 최재혁의 ‘가족의 화장실’은 발상이 참신하다. 그러나 화장실에 갇히게 된 동기가 제시돼 있지 않고 구성이 허술하다. 빈번한 괘호의 사용과 설명적 문투도 이야기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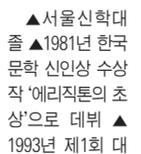
송현승의 ‘달’은 요즘 보기 드문 달동네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다. 곳곳에 디테일이 살아 있어 읽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으나 의욕적인 주제에도 불구하고 구조가 산만해 뒤로 갈수록 허전한느

낌이 들었다. 엄수정의 ‘뉘치는 남자’와 김찬희의 ‘피안’ 역시 소재는 참신하나 구성력에 있어서 아쉬움이 남는 작품이 있음을 밝혀둔다.

당선작으로 뽑은 오윤주의 ‘마술 극장’은 깔끔하다. 일단 단편소설의 기본 덕목을 고루 갖추고 있다. ‘마술 극장’이라는 허구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욕망의 문제를 다룬 이 작품은 짜임새가 좋



<이승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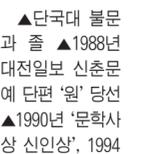
<윤대녕>

고 심리 묘사도 적절하다. 또한 마술사와 사랑에 빠지는 순간 환상이 깨진다는 대목에서 주제가 뚜렷이 살아난다.

갈등의 요소가 부족하다는 점, 다소 무거운 느낌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없지 않았으나 그래도 그중 완성도가 높다고 판단해 긴 논의 끝에 당선작으로 뽑았다. 앞으로 보다 좋은 작품을 쓰는 작가로 성장해주시기를 바란다. <이승우·윤대녕>



<이승우>



<윤대녕>

▲서울신학대 졸업 ▲1981년 한국 문학 신인상 수상 작 ‘에리직톤의 초상’으로 데뷔 ▲1993년 제1회 대 신문학상, 2002년 제15회 동서문학상, 2006년 현대문학상 수상 ▲조선대 문예 창작과 교수 ▲‘생의 이면’, ‘식물들의 생활’, ‘태초에 유혹이 있었다’ 등 다수.

▲단국대 불문과 졸업 ▲1988년 대전일보 신춘문에 단편 ‘월’ 당선 ▲1990년 ‘문학사상 신인상’, 1994년 ‘오늘의 젊은 예술가’, 제20회 이상문학상, 제43회 현대문학상 수상 ▲‘많은 별들이 한 곳으로 흘러갔다’, ‘코끼리 라 메인’, ‘사슴벌레 여자’ 등 다수.